

韓国語川柳・俳句部門 **最優秀賞**

木内 美子 (大阪府)

같은 반 친구 마흔살 차이지만 마음은 동갑

韓国語川柳・俳句部門 **優秀賞**

田中 李奈 (上智大学)

손에 손잡고 강원도 평창으로 세계는 하나

韓国語川柳・俳句部門 **優秀賞**

趙 政美 (京都韓国教育院中級)

한창 추운 날 장사꾼 할머니의  
채소 한 묶음

韓国語川柳・俳句部門 **佳作**

池田 貴之 (石川県)

아이돌 음악 이것 다 공부라며 핑계대는 나

韓国語川柳・俳句部門 **佳作**

原田 一男 (福岡県)

담배보다도 몸에 좋지 않다는 아내 잔소리

韓国語川柳・俳句部門 **佳作**

細井 摩耶子 (大阪府)

이열치열? 삼계탕을 먹고서 결국 팔빙수

韓国語川柳・俳句部門 **佳作**

工藤 万実 (東海大学)

숨겨진 맛집 바빠서 손님 각자 테이블 정리